

# Maison

메종 마리끌레르 한국판 JANUARY 2003

## marie claire

### SCANDINAVIAN DESIGN

북유럽의 자작나무 숲에서 온 심플하고 기능적인 가구와 소품

**COLLECTION** 2003 캘린더 & 다이어리  
SALON CHIC, CHILDISH COLOR, TIMBERLAND  
HABITAT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TOM DIXON

### MODERN LIGHTINGS

새해 첫날 꿈, 길몽일까 흉몽일까?  
**DR. STORAGE** 골치 아픈 수납, 수납 용품 컬렉션  
겨울 여행 떠나기 전, 주부가 준비해야 할 모든 것

### CONTEMPORARY KOREAN CUISINE

명절 음식, 제대로 만드는 법 & 세련되게 세팅해  
손님 접대 메뉴로 활용하는 법

# 2003 STYLE BODY & MIND

심신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자연 친화적 라이프 스타일 따르기



정가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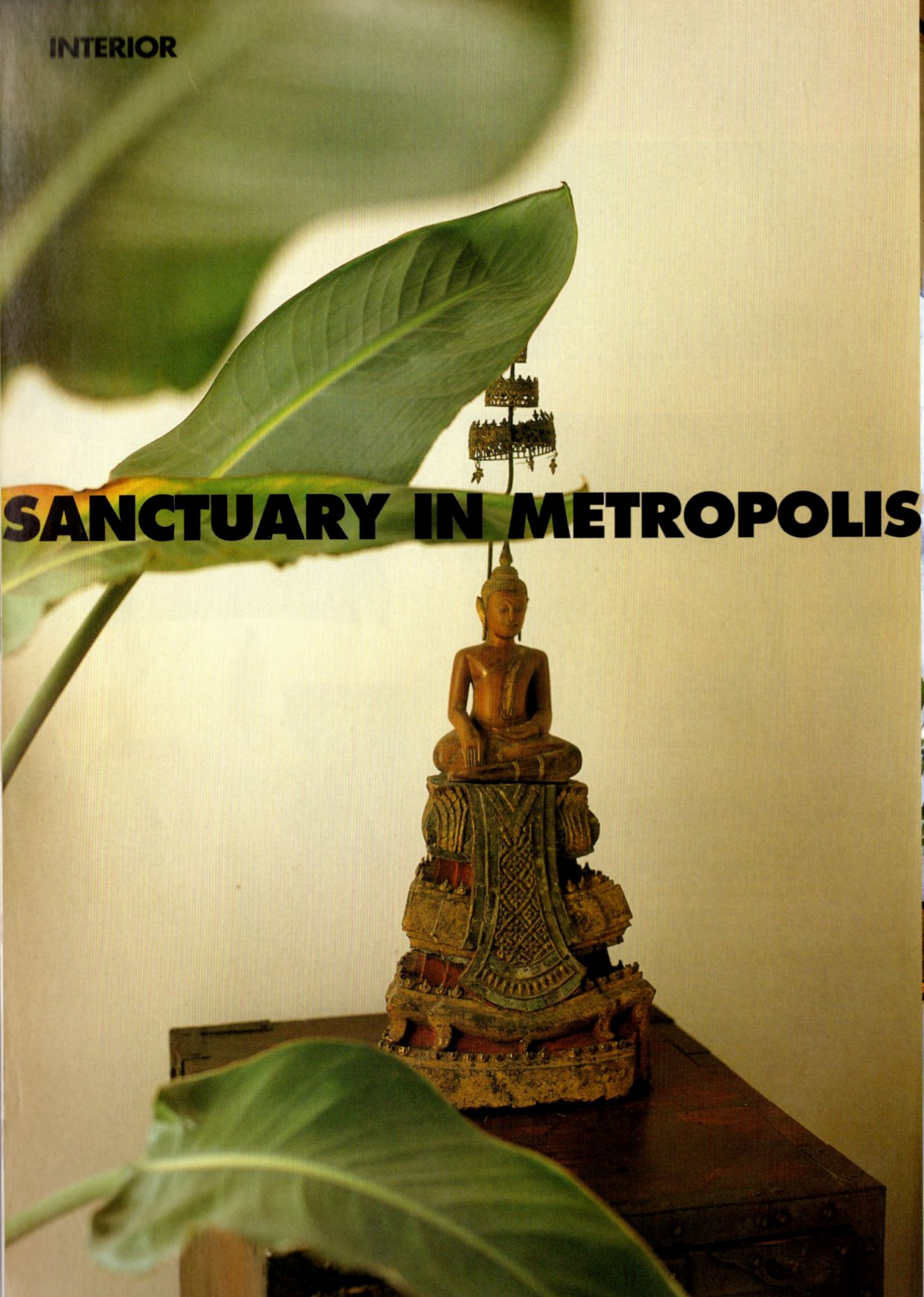


9 771227 846009  
ISSN 1227-8467

# SANCTUARY IN METROPOLIS

천장이 6미터에 이르는 거실 전경. 시원스런 흰 벽면은 프로젝트 팀 레 비전을 위한 스크린이고 벽 양쪽에는 스피커가 내장돼 있다. 거실에는 흰색 소파와 태국에서 구입한 벤치 그리고 땀핀으로 만든 낮은 티 테이블과 한국 전통 소반, 양푼 불상 등이 여유롭게 자리잡았다. 왼쪽 페이지. 집 안 곳곳에 유난히 많은 불상. 이곳은 동양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다. 거실 한쪽에 놓여 있는 이 불상은 태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와타테가 아끼는 물건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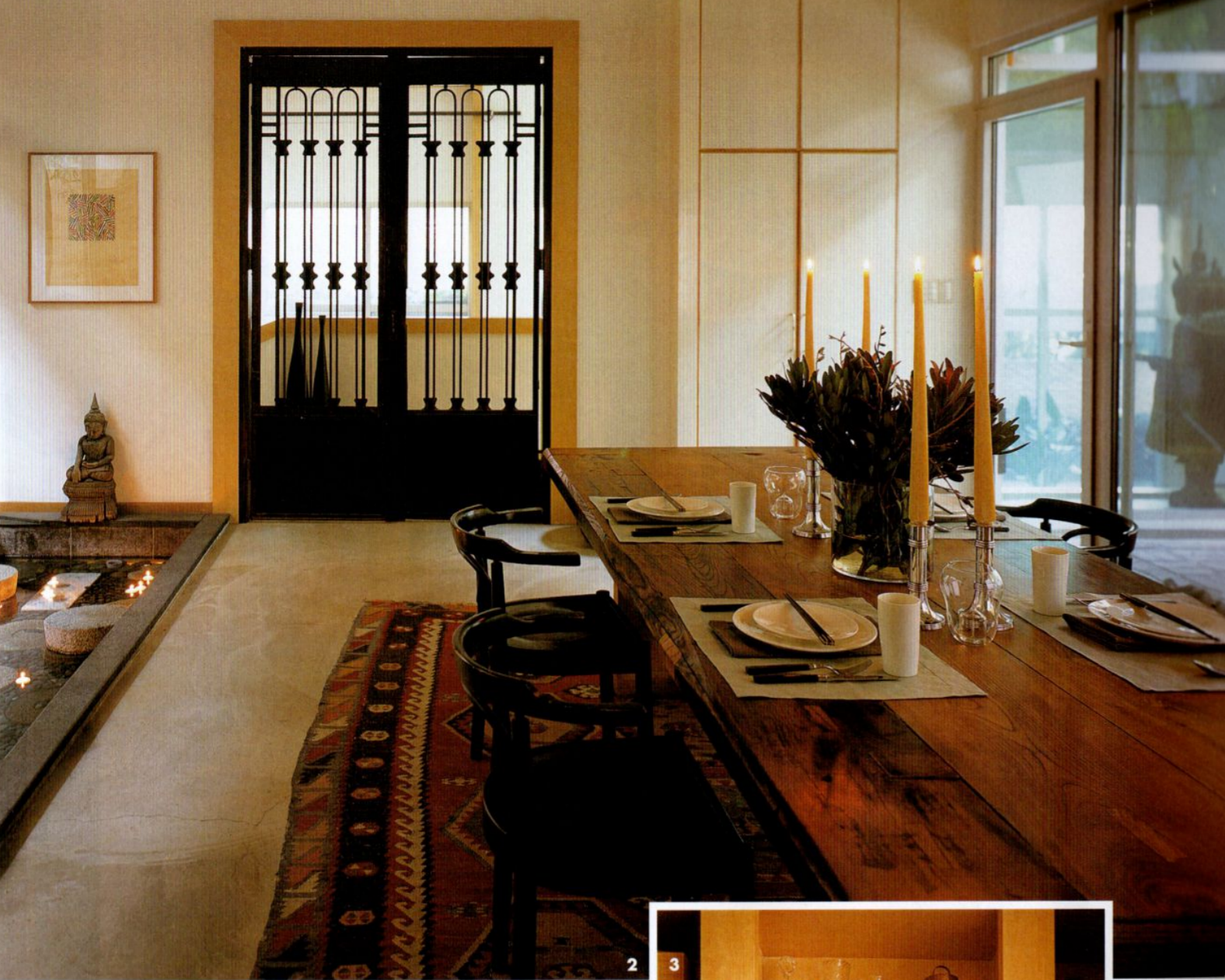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와타테 마사. 현재 한국의 레스토랑 컨설팅으로 바쁘지만 한 그에게 평창동에 있는 이 집은 도시의 복잡함을 잊게 하는 고요한 안식처 같은 곳이다. 에디터 김정원 | 포토그래퍼 이종근



거실 한쪽에는 히즈키의 대나무 스탠드가 놓여 있다. 레스토랑이나 호텔, 구르에 스텝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이와타테는 히즈키란 이름의 조명 브랜드도 갖고 있다. 대나무나 한지, 모시 등의 전통 소재를 사용하고 일부 제품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황덕기술단을 통해 판매한다.

**오른쪽 페이지.** 거실 오른쪽의 통창 밖으로는 정원의 커다란 나무가 보인다.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통창 아래부분에는 건축과 요리, 디자인에 관련된 각종 책이 빽빽이 꽂혀 있고 그 위에는 새장과 커다란 불상을 운치 있게 올려 두었다. 태국에서 구입한 청동 불상은 공간을 더욱 이국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준다.





2



1



3

원의 커다란 나무 뒤로 보이는 다이닝 룸엔 길이 가 족히 3미터가 넘는 투박한 식탁이 놓여 있었고 한쪽엔 불상과 함께 직사각형의 긴 실내 연못이 있었다. 다이닝 룸의 엔틱한 철문을 열고 또 한 번 계단을 내려가니 천장고가 6미터에 이르는 이국적인 공간이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거실인데 건축과 요리, 인테리어 등에 관련된 책들이 뽁뽁하게 꽂혀 있는 서가와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벽난로 그리고 흰색 캔버스로 만든 낮은 소파와 동양풍의 가구, 새장이나 불상 같은 소품이 운치 있게 배치돼 있었다. 벽난로 위로 하얗게 비워 놓은 흰색 벽은 프로젝션 텔레비전의 스크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 공간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이 집은 사실 남편이 설계하고 지은 곳이지만 집 안에 있는 가구며 소품 그리고 남편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모두가 이와타테 그의 컨셉으로 통일돼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조선 시대의 도자기처럼 동양적인 품위가 감돌면서도 모던한 절제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은 물론 요리에도 남다른 감각이 있는 그에게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우 특별하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아늑한 부엌에서 한국 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남편이 만든 멋진 연못 위에 초를 띄워 놓고 명상에 잠기기도 한다. 오는 3월이면 그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실감할 새로운 컨셉의 레스토랑을 만날 수 있다. 아직 모든 사항이 극비라고 웃어 넘기는 그이지만 모던한 가운데서도 일본과 한국, 중국과 태국 등 동양의 다국적 정취가 묻어나는 그의 아름다운 집에서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1. 다이닝 룸 창가에는 콘크리트 연못이 마련돼 있다. 연못 안에는 냇돌과 다들잇돌을 연상케 하는 둥글고 투박한 돌이 검은 자갈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치돼 있고 가장자리로는 따뜻한 조명이 새어 나온다. 연못 밖으로는 정원이 위치하는데 통창에 비친 촛불이 신비감을 더해 준다. 2. 부엌에서 바라본 다이닝 룸 전경. 바닥이 콘크리트로 마감된 이곳엔 3미터가 훨씬 넘는 나무 식탁과 연못이 나란히 위치한다. 이국적으로 보이는 철문을 열면 거실과 이어지는 계단이 나온다. 다이닝 룸 양쪽으로 통창이 위치하지만 밖으로는 모두 아담한 정원이 마련돼 있어 아늑하기만 하다. 3. 부엌 뒤쪽으로는 벽면 가득 수납장을 썼다. 이곳엔 마사가 직접 만든 그릇을 비롯해 일본의 장인들에서 선물받은 유리 제품과 도자기들이 보기 좋게 진열돼 있다.

라 퀴진 이소영 이사에게서 이와타테 마사(Iwatate Marcia)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으나 그를 처음 만난 건 두 달 전이었다. 둘만의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듯 매우 피곤한 모습들이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 인테리어 스타일링 좋은 방 신사옥 지하에 자리잡을 레스토랑에 관련된 일이었다. 이와타테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 했고 이소영 이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컨셉을 정하고 인테리어, 조명, 요리, 디스플레이, 세프, 그릇, 메뉴, 유니폼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동일한 컨셉으로 디렉팅하는 역할인 것이다. 잠깐 얘기를 하는 동안 그가 독일계 일본인이라는 것, 일본에서 히즈키(Hizuki)라는 디자인 컨설팅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결혼해 1년의 반 정도를 한국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많은 얘기 중에서도 가장 귀가 솔깃했던 점은 바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남편을 두고 한국에 반 정도를 머문다는 사실, 그 동안 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어 온 탓도 있지만 언뜻 보기에도 감각이 예사롭지 않을 그가 어떤 집에 사는지 몹시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아나나다을까 어떤 집에 사느냐는 에디터의 질문에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Beau-tiful house' 라고. 이와타테의 집은 평창동에 위치해 있었다. 도심의 소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작은 암자에 온 듯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집은 평지보다 낮은 대지에 자리잡고 있었다. 계단을 따라 조금 내려가니 아담한 정원과 함께 집이 보였는데 정말 이와타테의 말처럼 아름다웠다. 정

화이트 톤의 모던한 가구로 디자인한 부엌. 환풍기가 천정에 넓게 자리잡고 있어 음식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부엌 뒤쪽은 그의 그릇들을 놓아 둔 수납장이 보인다.



1. 요리에 남다른 감각이 있는 이와타테는 항상 새로운 요리 만들기를 좋아한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 재료를 이용해 독특한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레스토랑 컨설팅 때는 메뉴를 직접 개발하기도 한다. 이남은 마스카포네 치즈 위에 참란젓을 올려 애피타이저를 만들었고 아보카도를 구운 후 그 안에 간장 소스를 담아 냈다. 2. 이와타테는 한국에서 컨설팅 중인 레스토랑 메뉴를 슬쩍 공개하기도 했다. 무 스프링 롤과 상계알을 얹은 폴리플러워 무스가 그것. 요리를 담은 모던한 도자기는 모두 이 레스토랑을 위해 도예가와 함께 직접 만든 것. 요리와 세팅 또한 매우 심플하다. 3. 샴페인과 함께 미니 바게트 위에 세팅한 부른세타, 닭간과 올리브, 구운 야채, 토마토 페이스트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 4. 일본에서 유명한 슈운주 레스토랑 또한 이와타테가 컨설팅한 곳으로 최근 이곳의 셰프와 함께 요리책 '슈운주(Shunju)'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와타테는 슈운주의 메뉴 개발과 스타일링은 물론이고 이 책의 기획과 진행도 맡아 했다.

1



2

3

4